

# “비인기종목 관심 보람...파리올림픽 금메달로 보답할 것”

## 한국 근대5종 첫 메달 광주시청 전용태

“자신감을 갖고 경기한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는 금메달로 관심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2020 도쿄 올림픽 근대5종에서 동메달을 따낸 전용태(26·광주시청)가 12일 광주 서구 광주시체육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향후 포부를 밝혔다. 전용태는 한국 선수 사상 최초로 올림픽 근대5종 종목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지난 1964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올림픽 참가 이래 57년 만에 따낸 메달이다.

전용태에게 이번 올림픽 무대는 난관이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회가 1년 미뤄지면서 훈련, 페이스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다. 근대5종 경기는 한 선수수가 펜싱, 수영, 승마, 육상, 사격 등 5개 분야에서 기량을 겨루는 종목이다.

5가지 종목을 모두 치러 성적을 가리는 근대5종의 특성상 매일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모든 종목을 훈련해야 하는 과정을 소화했다. 코로나 때문에 외박도 휴일도 없이 삶 자체가 훈련의 연장선이었다고 한다.

코로나에 외박도 휴일도 없으며 승마장·육상트랙 등 오가며 훈련 자신감 갖고 경기한게 좋은 결과 다음엔 더 영리하게 경기할 것

매일 광주 남부대 국제수영장, 어등산 승마클럽, 올림픽국민생활관 펜싱장, 월드컵경기장 육상트랙 등을 오가기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근대5종 종목을 일괄훈련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이다.

전용태는 함께 출전한 선배 정진화(32·LH)와 나란히 3.4위를 차지했다. 정진화는 “4등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결국 그 4등의 주인공이 내가 됐다. 옹태와 약속을 못 지켰다”면서 “그래도 다른 선수 등이 아닌, 옹태 등을 보면서 결승선을 통과해서 마음이 좀 편했다”고 말해 둘의 진한 우정이 화제가 됐다.

정진화는 가장 오래 한국 근대5종을 지탱해온 선수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한국 선수 역대 최고인 11위에 올라 한국 근대5종의 올림픽 메달 꿈

을 부풀렸다. 2016년 리우 대회에서는 13위를 했다.

전용태는 “비인기 종목인 근대 5종 경기를 많이 알리지, 그러려면 좋은 경기력과 메달이 필요하다고 함께 출전한 정진화 선배와 이야기했다”며 “이번에 온 좋게 메달을 딸 수 있었고 큰 관심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갈증을 느꼈던 관심이 한꺼번에 쏟아져 감당이 안 되는데 (팬들에게) 일일이 감사드린다고 표현하지 못하지만, 너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동메달을 딴 건 다음 대회에서 은,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하늘의 뜻이 있는 것 같다”며 “다음 대회를 위해 재정비하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는 자신감으로 메달을 따면 다음에는 조금 더 영리하고 치밀하게 경기를 하고 싶다”며 “다음 올림픽에 출전할 땐 이미 노장이 될 텐데 그에 걸맞은 여우 같은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12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체육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한국 선수 사상 최초로 올림픽 근대5종 종목에서 동메달을 딴 전용태(26·광주시청)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광양제철중, U15 챔피언십 6전 전승으로 마무리

주장 이상민 9골로 득점상 리그서도 2위...우승 기대

전남 U15 광양제철중이 '2021 K리그 U15 챔피언십'을 6전 전승으로 마무리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주최한 '2021 K리그 U15 챔피언십'은 최근 포항에서 K리그 22개 구단 산하 U15팀이 참가해 진행됐다. 경쟁 중심적인 토너먼트 대신 조별리그로 축구 마라톤이 많은 경기를 펼 수 있도록 운영됐다.

또 평소 리그에서 만나지 않는 중부권역(주니어A)과 남부권역(주니어B)이 만날 수 있도록 인터 리그 방식이 도입되면서 전남은 인천, 서울, 안산, 강원, 제주, 성남과 경기를 치렀다.

승점 28점으로 주니어B에서 울산(31점)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는 전남은 이번 대회에서 6전 전승의 질주를 펼치면서 리그 우승까지 기대하게 했다.

특히 주장 이상민은 6경기 모두 출전해 9골을 터트리면서 대회 득점상을 받았다.

이상민 외에 손건호도 최전방에서부터 압박과 연계플레이를 선보이면서 전승에 이바지했고, 정우겸도 세트피스 전담 키커로 예리한 발끝을 자랑했다. 팀의 주축이 된 장원홍, 장준범, 안승호 2학년 선



포항에서 진행된 2021 K리그 U15 챔피언십에서 6전 전승을 거둔 전남 U15 광양제철중 선수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드래곤즈 제공>

수들의 활약도 눈부셨다.

광양제철중의 전승을 이끈 이재승 감독은 “코로나19로 작년 모든 대회가 취소되며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 임하는 자세가 남달랐다. 선수들의 개인 기량 발전과 팀의 목표를 함께 이룰 수 있는 성과를 달성했다”며 “남은 리그 일정에 집중해 더 큰 목표를 가지고 팀을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득점왕을 거머쥔 주장 이상민은 “전승이라는 팀의 목표를 동료, 후배들과 함께 이뤄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도 자신감을 얻었다. 우리 팀이 강팀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고, 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어지는 리그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실 틈 없는 체조 영웅들 다시 훈련 돌입 신재환·여서정 10월 세계선수권 출전

2020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체조의 위상을 높인 신재환(23·제천시청), 여서정(19·수원시청), 류성현(19·한국체대)이 올림픽의 여운을 뒤로 하고 다시 훈련을 시작한다.

이들이 나란히 출격할 무대는 10월 18~24일 일본 기타큐슈에서 열리는 50회 국제체조연맹(FIG) 세계기체조선수권대회다.

대한체조협회는 도쿄올림픽에서 거둔 성과를 1년 앞으로 다가온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이어가고자 올림픽에 출전한 정예급 선수들을 이번 세계선수권대회에 파견할 예정이다.

도쿄올림픽 남자 도마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2012 런던 대회 양학선(29·수원시청) 이래 역대 두 번째로 한국 체조에 금메달을 선사한 신재환과

역시 도마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어 한국 여자 선수는 최초로 올림픽 메달을 수집한 여서정은 세계선수권대회 메달도 겨냥한다.

남자 마루운동에서 4위에 올라 가능성을 인정받은 류성현, 남자 단체전 주축인 이준호(26·전북도청), 김한솔(26·서울시청)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기량을 끌어올려 아시안게임을 향해 힘을 낸다.

원래 올림픽이 열리는 해에 세계선수권대회는 열리지 않는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쿄올림픽이 예정보다 1년 늦은 올해 개최한 바람에 세계선수권대회와 일정이 겹쳤다.

협회는 9월 초에 강원도 홍천에서 세계선수권대회 파견 국가대표 선발전을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



지난 3일 귀국한 신재환(왼쪽)과 여서정이 메달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른기 생일 케이크 선물 받은 유도 대표팀 강유정.

## ‘삭발 투혼’ 순천시청 유도 강유정 “모자 선물만 9개...감동 받았어요”

“더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것”

2020 도쿄올림픽에서 체제 통과를 위해 삭발했던 유도 국가대표 강유정(순천시청)은 대회가 끝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수많은 팬이 감동적인 응원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이다. 어떤 팬들은 가발 혹은 모자를 선물 하겠다고 주소를 묻기도 했다.

강유정은 11일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지 못했는데도 많은 분이 따뜻하게 격려해주셔서 감사했다”며 “올림픽 출전 시간은 단 2분에 그쳤지만, 앞으로 선수 생활에 큰 동력을 얻은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일이 생일이었는데, 모자 선물만 9개를 받았다”며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다는 것도 다시 한번 느꼈다”라고도 말했다.

강유정은 지난달 왼쪽 십자인대 부상을 안고 도쿄올림픽에 출전했다.

당시 강유정은 부상 여파로 인해 체중 조절 문제를 겪었다.

그는 도쿄올림픽 유도 여자 48kg급 경기 전날인 7월 23일 체제를 통과하기 위해 강도 높

은 체중 감량을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그는 공식 체제를 5분 앞두고도 몸무게 150g이 초과하자 문구용 가위로 머리카락을 모두 밀고 가까스로 체제를 통과했다.

강유정은 하얗게 민 머리로 대회에 출전하는 투혼을 보였다.

그러나 7월 24일 도쿄 일본부도관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유도 여자 48kg급 32강에서 경기 시작 2분 만에 누르기 한판패를 기록하며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올림픽 출전 시간은 단 2분에 그쳤지만, 국민들은 투혼을 펼친 강유정을 따뜻하게 격려했다. 그는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것을 느꼈다”라며 “도쿄올림픽을 경험 삼아 다음 올림픽에서는 좀 더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유정의 왼쪽 무릎은 여전히 아프다. 그러나 수술은 잠시 미뤘다.

강유정은 “오는 10월 전국체전이 있고, 11월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내년 시즌 국가대표 선발전이 기다린다”라며 “일단 두 대회를 잘 마친 뒤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싱크홀
2관	모가디슈
3관	싱크홀, 더 수어사이드 스워드
4관	싱크홀
5관	모가디슈
6관	싱크홀
9관	프리 가이
7관 씨네커풀	보스 베이비 2, 블랙 위도우, 극장판 도라에몽: 친구의 신공룡
8관 씨네커풀	모가디슈, 방법: 재차의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박수를 보내다**

독주회 시리즈 II  
원재연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 2021. 08. 21.(토) 19:3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

**GAC 11시 음악산책 5**  
조진주, 소리너머

일시 : 2021. 08. 25.(수) 11: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2

즐거움

**문화산책**